



유치원에 간 얼룩소

한 우 경

(한일축산인 친목교류회)

지난 5월 25일 오전 필자는 우리일행 아홉 명과 함께 일본 동경을 향하여 김포공항을 출발하였다.

주목적은 동경에서 열리고 있는 '93 국제식품기계전시회 참관이였다. 우리 일행은 축산식품(낙농, 육가공제품등)과 관련되는 종사자들로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 유제품관련자들의 목소리가 역시 컸다.

우리는 바쁜 일정을 쪼개어 전시회 참관 다음날에는 전낙연(일본 전국낙농업 협동조합연합회의 약칭)의 유업개발연구소와 낙농화학분석 센터, 우유공장, 디저-트 공장을 둘러보았다. 물론 이들 전낙연의 연구소등은 필자가 23년 전에 공부하였던 곳이어서 필자가 사전에 전화로 부탁하여 양해를 구하였음은 물론이다.

오늘 이 글을 쓰는 주목적이 전낙연을 소개하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 일행은 전낙연 유업연구소를 둘러보고 난 후에 연구소장은 필자에게 왜 이번에는 목장 방문계획이 없느냐고 묻는게 아닌가?

일행과 헤어진 후 연구소장의 승용차에 탔다. 얼마후 도착한 곳은 동경 서남쪽 고려천이 흐르는 전원도시로서 전형적인 동경의 Bed Town인 작은 도시였다.

목장주인인 40대 초반의 "가메다"씨와 인사를 나누고 목장을 둘러보았다.

목장과 등을 맞대고 20분간격으로 전철이 지나 다닌다며 이미 옛날 시골 목장풍경은 아니란다. 그런 환경에서도 목장주인 가메다씨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능력이 높은 소를 만들 수 있을까"하고 소의 능력개량에 모든 정열을 쏟고 있는 낙농가라고 연구소장이 설명을 붙인다.

목장주 "가메다"씨는 일본 북해도의 고등학교에서 낙농을 공부한 후 곧바로 부친의 가업을 승계받았다고 한다. 부친은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1년전에 우사를 새로 짓고 그가 졸업하기를 기다렸다 하니 그가 낙농업에 종사하게 된 까닭이 특별히 있을수가 없었다고 한다.

현재 목장의 규모는 착유우 30두, 육성우

“

목장주 “가메다”씨는 일본 북해도의 고등학교에서 낙농을 공부한 후 곧바로 부친의 기업을 승계받았다고 한다. 부친은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1년전에 우사를 새로 짓고 그가 졸업하기를 기다렸다 하니 그가 낙농업에 종사하게 된 까닭이 특별히 있을수가 없었다
 지금은 연간 10,000kg 이상의 고능력우는 물론 일본 전국 공진회에서 우등상을 타는 고능력우를 속속 탄생시키고 있다

”

30두 도합 60두이고 목장시작 당시에는 20두였다 한다. 두수를 늘려볼까 하고 생각도 하였지만 그의 목표는 소의 능력개량에만 있었으므로 오로지 그쪽으로만 연구하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생각처럼 되지않아 초조한 방황하는 세월도 보냈다고 한다. 시행착오의 연속이어서 때로는 방향전환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반갑게도 차츰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제야 겨우 방향설정이 되어가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 낙농을 시작하여 20여년간이란 오랜 세월을 유우의 능력개량이라는 한가지 목표에만 진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연간 10,000kg 이상의 고능력우는 물론 일본 전국 공진회에서 우등상을 타는 고능력우를 속속 탄생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의 설명을 들으니 전낙연 연구소장이 내게 이 목장을 방문토록 권유한 이유를 알게되었다. 목장주에게 그 비결을 물었더니 대답인즉 육성우에게는 좀 사치품이겠으나 영양가 높은 “티모시” 건초를 충분히 급여하여 좋은 유방을 만든것과, 어미소에게는 “알팔파”, “텐트콘”등의 자급사료를 아끼지 말고 먹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는 그 때문에 10ha의 사료포에 자기 부부와 양친부모 등 네명이 공동으로 목초 농사를 짓고 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고능력우를 탄생시키

기 위하여 부단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가메다”씨에 대한 소개가 너무나 부족하고 소홀함을 새삼 느껴진다.

일본의 목장을 수없이 많이 방문하여 보았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도심속에서 목장을 경영하면서도 인근주민들과 갈등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민속에 파고 들면서 목장을 개방하므로써 인근 어린이들이 놀이터처럼 찾고 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철저한 분뇨처리와 환경정리로 낙농은 불결하고 악취나며 파리, 모기등의 곤충이 모이는 곳이란 옛날의 관념이 완전히 제거되고 있는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에 방문한 “가메다”씨 목장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중에서 그 만이 갖을 수 있는 즐거움중의 한가지를 소개해 보고저 한다.

그는 16년째 매년 한번씩 어미소와 그 송아지를 몰고 시내에 있는 유치원 세곳을 방문하여 유치원 어린이에게 우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행사를 가장 큰 즐거움의 하나로 꼽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소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없었던 어린이들이라 그가 소를 몰고 들어가면 말할 수 없이 즐겁게 환영하여 준다. 그리고는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소와 우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소에게 흥미를 끌게 하기 위하여 현장에

“

그는 16년째 매년 한번씩 어미소와 그 송아지를 몰고 시내에 있는 유치원 세곳을 방문하여 유치원 어린이에게 우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행사를 가장 큰 즐거움의 하나로 꼽고 있었다.

유치원에서 착유를 직접해 원생에게 우유를 만지게 하면 어린이들은 하나같이 먹는 우유는 천데 왜 이 우유는 따뜻하냐고 묻는다.

”

서 소를 이용하여 어린이들이 즐거워 할 실험도 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소의 궁둥이에 이물(파리 등)이 붙었을 경우 그것을 쫓기 위하여는 소가 꼬리를 흔들어서 쫓는다는 등 소의 반응을 보여준다든지 현장에서 착유를 하는 장면을 보여준다든지 하여 어린이들은 궁금증과 호기심을 풀어준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 중의 하나는 착유직후의 우유를 감축한(만져본) 어린이들이 하나같이 자기들이 사서 먹는 우유는 차가운데 왜 이 우유는 따뜻하냐고 놀라더란다.

16년간을 한번도 걸르지 않고 그런 행사를 하였다 하니 그 세곳의 유치원을 다닌 학생들(현재 대학생도 있을 테고 국민학생도 있을 것)은 평생 소와 우유에 대하여는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누군가가 목장을 개방하고 유치원 어린이들을 목장에 초대한다든지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여 본다.

이번에는 내가 축사쪽으로 화제의 방향을 돌리자 그도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후리스틀 방식의 개축 문제를 생각안해 본 것은 아니나 현재의 자기 목장규모로는 오히려 소가 불편해 할 것 같을 뿐 아니라 소에게 지어준 이름대로 소를 기억하기 힘들 것 같고 애정이 떨어질 것 같아 결심을 못한다며 현재의 착유우 30두를 고능력우로 개량하면서 50두까지만 늘여서 지역주민들이 목장을 배경으로 그림이라도

그리러 올 정도의 목가적인 목장을 꾸미는 것이 자기의 이상이라고 한다.

중학교 동창생이었다는 부인은 낙농과는 전혀 관계없는 환경에서 자랐으나 특별히 불안감이 시집와서 자연스럽게 낙농업에 빠졌으며 어떤 작업도 시부모, 자기부부 네명의 각자에게 역할 분담없이 함께 작업하므로써 어느 한 사람에게만 중압감을 주는일이 없어 좋다고 한다. 일요일에는 밭일은 일체하지 않고 쉬며 특히 이때에는 부부동반으로 스포츠클럽에 참가한다든지 하여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한다고 한다.

“가메다”씨 일가는 이렇게 도심근교에서 목장을 하면서 유치원 어린이는 물론 지역주민 모두와 적극 교류하므로써 자연스럽게 낙농체험을 하게하고 소와 가까이 하게하므로써 낙농과 친숙하게 하여 낙농(酪農)을 즐거운 낙농(樂農)으로 이끌고 있음을 보았다.

젖소에 대한 체험, 낙농과 우유에 대한 이해 등으로 낙농가의 노동력이 노인에서 젊은층으로 자연스럽게 승계되고 또 시집오고 싶어하는 젊은 여성층도 늘고 있다고 한다.

“가메다”씨는 헤어지는 필자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하고 있는 일에 꿈을 갖을 수 있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되겠습니까? 뒤를 이을 사람이 갖는 꿈은 언제나 밝습니다.”